



타자의 환상

모든 것을 바꾸는, 알아차리지 못한 도약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설명하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지적 정직함이다.

목차

작가의 글	3
서문	4
안내	5
1장 – 우리는 왜 스스로를 분리되었다고 느끼는가	6
2장 – '타자'의 대가	12
3장 – 신은 어떻게 외부가 되었는가	16
4장 – 신과 우주	20
5장 – 하나됨, 다수성, 그리고 분리의 환상	24
6장 – 인간이란 무엇인가	28
7장 – 자유의지, 권력, 그리고 책임	32
8장 – 왜 연민은 합리적인가	36
9장 – 교리 없는 의미	42
10장 – 타자 없이 살기	46

작가의 글

이것은 내가 처음 쓴 책이다.

증명 이전에, 정식 논문 이전에, 수학 이전에, 킥 스위치 이전에 쓰였다. 질문이 먼저 왔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쓰였다.

우리는 정말로 분리되어 있는가?

나는 이 질문을 멈출 수 없었다. 세상을 보며 하나의 가정이 끼치는 피해를 보았다 – 당신과 내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가정. 잔인함 속에서 그것을 보았다. 무관심 속에서 그것을 보았다. 사람들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가치 있는 자와 가치 없는 자, 우리와 그들로 분류하는 체계 속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분류가 항상 같은 곳에서 온다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다르다는 검증되지 않은 믿음에서.

이 책 이후에 내가 쓴 모든 것 – 마흔두 편의 정식 논문, 세 권의 증명서, 백만 단어의 도출 – 은 단 하나의 이유로 쓰였다: 이 책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여기서 부드럽게 말한 것에 물리학의 전체 무게를 부여하기 위해.

그러나 이 책을 읽는 데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이 책은 독립적이다. 질문과 함께 앉아 정직하게 어디로 이끄는지 보라고 요청할 뿐이다. 물리학 없이. 방정식 없이. 특별한 배경 없이. 인내와 정직만 있으면 된다.

여기서 말한 것이 당신을 움직인다면, 정식 작업은 존재한다. the420code.org에서 영원히 무료로 출판되어 있다. 증명이 거기 있다. 수학이 거기 있다. 모든 주장이 무너지는 정확한 조건이 거기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것이 부드러운 문이다. 편한 속도로 들어오라.

— G

서문

당신은 이미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안다.

세부 사항이 아니다. 논증이 아니다. 하지만 결론은 – 느낀 적이 있다. 가까움의 순간에, 고요의 순간에,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이름 없는 무언가를 알아보는 그 드물고 무장 해제되는 경험에서.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놓아주었다. 세상에 그것을 위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배운 것 중 어떤 것도 그 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기에 너무 단순해 보였기 때문에.

이 책은 당신에게 그 말을 준다.

하나의 가정을 검토한다 – 당신과 내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 – 그리고 그 가정이 의문시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추적한다. 공격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다. 인내와 주의를 가지고 부드럽게 질문한다.

여기 있는 그 무엇도 과학, 상식, 또는 일상의 구별을 거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몸은 몸으로 남는다. 사람은 사람으로 남는다. 차이는 실재로 남는다.

검토되는 것은 차이가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이다.

믿음은 요구되지 않는다. 신앙은 구해지지 않는다. 도덕적 헌신은 요구되지 않는다.

요구되는 것은 정직 – 당신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당신이 아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무언가를 말해오지 않았는지 물을 의지다.

여기 묘사된 것이 보인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은 없다.

안내

이 책에는 열 개의 장이 있다. 서로 위에 쌓인다. 각각은 앞의 장에서 이어진다.

1장은 모든 사람이 이미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한다 — 분리의 느낌에서 — 그리고 그 느낌이 최종적인 진실인지 아니면 도구임을 잊어버린 유용한 도구인지를 묻는다.

2장에서 4장은 분리가 근본적인 것으로 취급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추적한다 — 그 대가, 그것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에 어떻게 배어들었는지.

5장에서 7장은 대안을 구축한다 —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인식으로서. 하나됨과 차이. 개인. 자유와 책임.

8장에서 10장은 결론을 도출한다. 연민. 의미. 실천.

논증은 누적적이다. 각 장이 다음 장을 벌어들인다. 끝에 이르러 결론은 놀라움으로 느껴져서는 안 된다.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이 마침내 분명하게 말해진 것으로 느껴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 책은 할 일을 한 것이다.

1장

우리는 왜 스스로를 분리되었다고 느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하고 지속적인 느낌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 나는 여기 있고, 세상은 저기 있다. 나는 내 피부 안에, 눈 뒤에 있고, 나머지 모든 것 — 다른 사람들, 다른 마음들, 날씨, 소음, 별들 — 은 내 밖에 있다. 가까움의 순간에도 — 누군가를 안을 때, 일몰을 볼 때, 팔의 털이 곤두서는 음악을 들을 때 — 기본적인 느낌은 남아 있다. 나가 있다. 그리고 나가 아닌 것이 있다.

이 느낌은 너무나 명백해서 거의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해석이 아닌 사실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물을 가치가 있는 질문이 하나 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분리는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인가? 아니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사물이 보이는 방식인가?

이 질문은 당신에게 몸이 있고 나에게 몸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당신의 생각이 있고 나에게 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어떤 실용적인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여전히 자기 손과 테이블을 구별할 수 있다.

질문은 더 깊다. 분리의 느낌이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말해주는지 — 아니면 너무 잘 작동해서 도구임을 잊어버린 도구인지를 묻는다.

다른 무엇에 대해서든 말하기 전에 — 신에 대해, 의미에 대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 우리는 모두가 이미 서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분리의 느낌과 그것이 왜 그토록 설득력 있는지에서.

몸이 선을 긋다

우리가 분리를 느끼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몸이다.

당신의 신경 체계는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다. 위협과 기회를 매핑한다. 유기체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을 안다.

배고픔은 여기서, 이 위장에서 느껴진다. 고통은 여기서, 이 몸에서 느껴진다. 촉각, 균형, 온도 – 모든 신호가 같은 것을 말한다: 이 몸을 보호하라.

살아남는 관점에서 세상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는 것은 완벽하게 합리적이다. 자신을 환경과 구별하지 못하는 동물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분리는 실수가 아니다. 생존 전략이다.

하지만 전략은 진실과 같은 것이 아니다.

지도는 유용하지만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무언가가 훌륭하게 작동한다 해도 존재에 대한 최후의 말은 아닐 수 있다.

마음이 이야기를 더한다

몸이 그은 선 위에 마음은 서술자를 더한다.

인간은 놀라운 일을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준다.

감각, 기억, 두려움, 희망, 습관을 취하여 하나의 인물로 엮는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삶이다. 이것이 내가 관심 갖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유용하다. 연속성을 만든다. 배우고, 계획하고, 책임지고,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자아가 사물 –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세상을 관통하는 단단한 물체 – 이라는 느낌도 강화한다.

사람들이 '나'라고 말할 때, 대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몸? 인격? 마음? 마음 뒤에 있는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나'라는 감각이 이미 조립된 상태로 도착하기 때문이다. 명백한 것으로 스스로를 제시한다. 아무도 그것이 정확한지 물어보지 않았다.

일단 그 중심이 가정되면, 다른 모든 것은 '타자'가 된다.

언어가 그것을 고정한다

몸이 선을 긋고 마음이 그것을 강화한다면, 언어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느끼게 한다.

언어는 사물을 이름 붙여진 조각들로 나누어 작동한다. 나무. 하늘. 사람. 낯선 이. 내 것. 당신 것. 이 구분들은 유용하다. 그것 없이는 소통, 협력, 명확한 사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용성은 조용히 혼란이 될 수 있다.

언어가 나누기 때문에, 구분이 실재의 근본적 본질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단일 과정 내의 패턴이 아니라 진정으로 분리된 존재인 것처럼 이름 붙여진 것들을 대하기 시작한다.

'바다'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라.

하나의 대상처럼 들리는 무언가를 이름 짓는다. 하지만 바다는 돌과 같은 단일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조류, 온도, 압력, 조수 – 모두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단어가 그것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은데.

단어는 필요하다.

하지만 연결만 있는 곳에 분리를 암시할 수 있다.

집단이 규모를 키운다

분리는 개인적인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 사회적이 된다.

우리는 집단을 형성한다. 정체성을 물려받는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선을 긋는다.

이것은 오래되었고 항상 해로운 것은 아니다. 공동체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공유된 문화는 소속감을 만든다.

문제는 차이가 거리가 될 때 — '나와 다른'이 '나보다 못한' 또는 '나와 상관없는'으로 변할 때 — 시작된다.

그 시점에서 공감은 선택 사항이 된다.

타인의 내면 — 그들의 두려움, 희망, 피로 — 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부정되어서가 아니다.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서다.

이것은 보통 잔인함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는다. 합리성으로 자신을 알린다.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것을 선택했다.'

이 문장들은 차분하게 말해진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힘을 부여한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도약

몸, 이야기, 언어, 집단 아래에 거의 아무도 자신이 하고 있다고 잡아내지 못하는 한 가지 움직임이 있다.

우리는 '나는 자신을 분리되었다고 경험한다'에서 '나는 근본적 수준에서 분리되어 있다'로 넘어간다.

그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보장되지 않는다.

경험은 관점에 의해 형성된다. 관점은 설계상 제한적이다. 제한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출을 볼 때, 그것은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빛은 당신의 눈에 들어가고, 전기 신호가 되고, 경험이 된다. 그 순간 '안'과 '밖'의 경계는 정확히 어디인가?

숨 쉴 때, 세상은 어디서 끝나고 당신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일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형성한다. 언어, 신념, 정체성 — 이것들은 선택되기 전에 물려받는다. 아무도 혼자서 자신이 되지 않는다.

완전히 독립적인 자아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지적 정직이다: 분리는 경험이다.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최후의 말이 아닐 수 있다.

유용한 경계, 최종적이지 않은 경계

경계는 존재한다. 몸에는 피부가 있다. 개념에는 정의가 있다. 이 경계들은 목적에 봉사한다 — 생존, 조정, 소통.

하지만 유용한 경계는 쉽게 최종적인 것으로 오해된다.

세포에는 막이 있지만, 주변과의 교환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지만,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한다 – 생물학적, 사회적, 생태학적 관계.

경계는 존재하는 것을 조직한다. 그것을 분리된 종류의 존재로 나누지 않는다.

이것을 추상적이 아닌 직관적으로 만들기 위해 간단한 이미지가 도움이 된다. 모래 위에 선을 그어도 모래가 두 가지 다른 물질이 되지는 않는다.

선은 실재한다. 모래는 하나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 실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하나인 것이지 하나인 척하는 많은 것이 아니라면 – 뒤따르는 것은 교정이다. 그 교정의 단어는 하나됨이다.

동일함이 아니다. 차이의 소거가 아니다. 구별이 단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일 뿐이다.

이것이 보이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이의 연결은 피할 수 없게 된다.

2장

·타자의 대가

분리의 느낌이 근본적 진실로 취급되면, 그것은 안에 머물지 않는다. 밖으로 확대된다.

'나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로 시작하는 것이 조용히 '우리는 그들과 분리되어 있다'가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이 장은 누구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패턴의 검토다 — 근본적 타자성에 대한 믿음이 정체성, 신념 체계, 제도에 배어들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의.

하나됨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분리의 대가를 이해해야 한다.

차이에서 거리로

사람은 다르다. 기질, 언어, 문화, 능력, 신념, 상황에서. 이 차이들은 예외가 아니다. 삶의 보통 질감이다. 차이 자체는 도덕적 무게를 지니지 않는다.

문제는 차이가 아니다. 문제는 차이가 서술이기를 멈추고 정의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이다 — '나와 다른'이 조용히 '근본적 수준에서 나와 떨어진'으로 등록될 때.

이 전환은 좀처럼 명백하지 않다. 적대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상식으로 느껴진다.

주의가 좁아진다. 동일시가 약해진다. 타인의 내면이 후퇴한다 — 부정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전경에 있지 않아서.

공개적 적대감 없이 거리를 만드는 설명들이 나타난다: 가치관의 차이, 선택의 차이, 책임의 차이. 이 설명들은 신중하게 들린다. 성숙하게 들린다.

바로 신중하게 들리기 때문에 조용히 그 일을 한다. 차이는 아무도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거리가 된다.

무관심이면 충분하다

타인이 깊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 고통은 경험이 아닌 정보가 된다. 그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인정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 집단의 이익, 신념에 대한 충성과 저울질할 수 있다.

증오는 필요 없다. 무관심이면 충분하다.

무관심은 편하다. 도덕적 긴장을 해소한다.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된다. 정상으로 느껴진다. 시야에서 사라진다.

신념이 관계보다 상위가 될 때

분리가 이데올로기 – 특히 최후의 말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 에 의해 뒷받침되면 패턴이 강화된다.

신념 체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외부 권위와의 관계라고 가르칠 때, 조용한 서열이 나타난다:

첫째, 권위에 대한 충성.

둘째, 신념 체계에 대한 충성.

셋째, 집단에 대한 충성.

그래야만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서열이 받아들여지면 엄청난 일들이 정당화 가능해진다.

순종이 최고선이라면 해악은 의무로 재정의될 수 있다. 신앙이 최고 덕목이라면 의심은 위험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 악의는 필요 없다. 확신만 필요하다.

역사는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이데올로기로 정당화된 폭력은 잔인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확신에서 시작된다.

의로움

분리의 가장 위험한 보상 중 하나는 의로움이다.

의로움은 깨끗하게 느껴진다. 목적 있게 느껴진다. 정당하게 느껴진다.

해로운 것을 하면서도 해롭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한다.

누군가가 깊이 타자로 분류되면 — 틀린, 불순한, 위험한, 악한 — 도덕적 계산이 바뀐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행동들이 필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 패턴은 종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 운동, 국가 정체성, 인종 서열, 모든 종류의 도덕적 십자군에서 나타난다. 내용은 변한다. 구조는 같다.

구조는 단순하다: 나는 진실의 편에 서 있다. 당신은 그 밖에 서 있다.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분리가 그 구조를 안정시킨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대가

분리의 대가는 폭력으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가장 눈에 보이는 표현이다. 더 깊은 대가는 더 조용하다 – 아무도 해를 끼칠 의도가 없어도 삶이 경험되는 방식을 재형성한다.

분리가 출발점일 때, 존재는 각 개인이 혼자 관리해야 하는 것이 된다. 연결은 선택 사항이 된다. 의미는 사적인 것이 된다. 안전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된다.

결과는 타인 속에서도 외로움으로 나타난다. 홀로 서 있음에 뿌리박힌 불안으로. 거래로 취급되는 관계로. 살아있는 연결에서 발견되지 않고 권위에 외주된 의미로.

잔인함은 필요 없다. 사람들이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되고 연결이 이차적인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분리가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라면, 이 대가들은 단지 살아있음의 값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 아니라면 – 유용한 관점이 최종적인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 재검토는 특히 영향력 있는 하나의 생각을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 이제껏 만들어진 분리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중대한 구현.

신이 세상 밖에 있다는 생각.

종교가 적이기 때문이 아니다. 역사상 어떤 제도도 분리를 신성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이만큼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분리를 정직하게 질문하려면, 그것에 가장 깊은 권위가 부여된 곳을 봐야 한다.

3장

신은 어떻게 외부가 되었는가

신이 무엇인지 묻기 전에, 신이 어디에 놓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부드럽게 이해해야 한다 — 많은 사람들에게 신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것은 그 관계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그것을 둘러싼 건축의 검토이며, 그 건축이 무엇을 대가로 치렀는지의 검토다.

인류 초기 역사의 대부분에서 성스러운 것은 멀리 있는 것으로 경험되지 않았다. 직접적이었다. 자연은 배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장이었다 — 위협적이고, 양육하고, 신비로운. 폭풍, 계절, 탄생, 질병, 죽음 — 이것들은 밖에서 설명되는 사건들이 아니었다. 세상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다. 성스러운 것은 모든 것 위에 들어 올려지기 전에 모든 것에 짜여져 있었다.

외부의 신으로의 움직임은 실수로 시작되지 않았다.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힘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다.

임재에서 권력으로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설명도 성장했다. 한때 살아있는 힘의 장으로 느껴졌던 것이 점차 의인화되었다. 천둥은 신이 되었다. 풍요는 여신이 되었다. 시간, 죽음, 전쟁, 지혜 — 각각에 얼굴과 의지가 주어졌다.

의인화는 세상을 친숙하게 만들었다. 또한 통치 가능하게 만들었다.

성스러운 것이 의지를 가진 것으로 상상되자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명령할 수 있게 되자 복종할 수 있게 되었다. 복종이 중심이 되자 관계가 바뀌었다 — 참여에서 위계로.

시간이 지나면서 신은 개념과 이미지 모두에서 위로 이동했다. 신은 세상 '위에', '너머에', '밖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게 되었다. 성스러운 것은 더 이상 존재에 짜여져 있지 않았다. 그것을 지배했다.

이 전환은 점진적이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

분열

신이 세상 밖에 놓이면 분할이 도입된다: 창조자는 여기, 피조물은 저기.

이것은 직관적으로 보인다. 도공은 항아리가 아니다. 건축가는 건물이 아니다.

하지만 비유는 정확히 중요한 곳에서 깨진다.

도공은 항아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신이 모든 것이 의존하는 것 — 궁극적인 것 — 으로 이해된다면, 신은 만든 자와 물건의 관계와 같은 관계에 세상과 설 수 없다. 만든 자는 만든 것에서 떠날 수 있다. 신이 어디에나 모든 것 안에 있다면, 떠날 곳이 없다.

신이 존재자들 중의 한 존재자로 — 가장 높은 것이라 해도 — 상상되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신은 하나의 것이 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른 것이 된다.

하나됨은 거리로 대체된다. 참여는 복종으로 대체된다. 성스러운 것은 더 이상 존재의 근거가 아니다. 신앙의 대상이 된다.

권위가 이해를 대체한다

신이 외부일 때, 신에 대한 접근은 매개되어야 한다. 신에 대한 지식은 어딘가에서
와야 한다 – 경전, 교리, 성직, 전통에서.

이것은 처음에는 해롭지 않다. 공동체에는 공유된 이야기와 구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권위에는 중력이 있다. 의미를 위로 끌어당긴다.

진실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이 된다. 도덕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되는 것이 된다.

개인의 과제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아니라 외부
의지와 의 정렬이 된다.

사람은 이제 진심으로 악의 없이 말할 수 있다: 신과의 관계가 바르므로 행위는
정당화된다.

잔인함은 필요 없다. 확신이 필요할 뿐이다.

잃어버린 것

이 전환에서 본질적인 무언가가 잊혔다 –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 의해, 점진적으로, 수세기에 걸쳐.

잃어버린 것은 존재 자체가 신성하다는 감각이다. 법령이나 신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에 의해.

신이 외부일 때 세상은 잠정적이 된다. 이 삶은 참여가 아닌 시험이 된다. 성스러운
것은 현재로 인식되지 않고 연기된다 – 천국으로, 내세로, 심판으로.

성스러운 것이 연기되면 고통은 더 쉽게 감내된다. 누군가가 잔인하기로 했기 때문이 아니다. 건축이 조용히 제안했기 때문이다: 진짜는 다른 곳에 있다. 이 삶은 일시적이다. 여기서의 고통은 요점이 아니다.

그 제안은 잔인한 사람들이 발명한 것이 아니다. 친절한 사람들이 물려받았다. 그 제안을 가진 친절한 사람들은 조금 더 쉽게 되었음을 발견했다 —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자기 고통에서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서.

이것이 구조적 대가다. 잔인함이 아니다. 더 조용한 무언가. 눈을 돌릴 허가.

조용한 질문

신이 전능하고, 전지하고, 편재한다면 — 신은 정확히 무엇의 밖에 있는가?

모든 것 너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을 모든 것 너머에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신이 어디에나 있다면, 신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외부의 신을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자신의 서술의 무게 아래서 조용히 비밀관적이 된다.

내재성을 향해

외부의 신을 거부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죽은 물질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 선택이다.

대안은 무신론이 아니다. 내재성이다.

내재성은 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거리를 부정한다.

신은 존재하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지배자나 심판관으로 떨어져 서 있지 않다. 존재 자체와 동일하다 — 시로서가 아니라, 의미를 이루는 가장 단순한 서술로서.

이것이 맞다면, 세상은 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내버려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이 무엇인지의 진행 중인 표현이다.

그리고 우리 — 그 안의 의식적 존재 — 는 관객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식하게 된 세상이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 책을 펴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어릴 때, 층이 더해지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 몸이 선을 긋기 전, 마음이 이야기를 짓기 전, 언어가 그것을 고정하기 전, 집단이 규모를 키우기 전.

진정한 가까움의 모든 순간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유가 필요 없는 모든 진심의 친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표면 뒤에 타자가 아닌 무언가를 본 모든 인식의 섬광에서.

알고 있었다. 단지 말이 없었을 뿐이다.

이제 있다.

개새끼가 되지 마라. 친절해라.

이 작품은 영원히 무료로 출판됩니다.

the420code.org

이 저작물은 Copyleft입니다. 다운로드, 인쇄, 공유, 배포가 자유롭습니다. 원본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